Hawaii Pacific University(2011 Fall)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2011학년도 2학기에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로 어학연수형 교환학생을 다녀온 08학번 이주희 학생입니다. 사실 취업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다녀오는 거라 가기 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정말 저에게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 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챙겨가야 할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시고 저는 가셔서 직접 사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하와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갔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옷이나 비상약만 챙겨가고 다른 여러 생활용품은 가셔서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는 너무 비싸고 옷은 한국 옷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여러 생활용품은 오히려 더 싸거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돌아오실 때는 선물 등으로 짐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어 가실 때는 짐을 최대한 가볍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인터넷 전화기 들고 가시는 분 많은데요. 그보다 skype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들의 경우로 봤을 때 인터넷 전화기 안터져서 결국 짐만 되고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통화하실 때는 인터넷 전화기 보다는 skype를 추천해드립니다.

숙박시설의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와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부터는 운 좋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남은 시간들을 기숙사에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나 외국인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어울리는데 있어서 기숙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기본으로 4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배치가 되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방과후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계속 기숙사로 옮기고 싶다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어 운 좋게 누군가가 기숙사 캔슬을 하여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숙사 시설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의 경우에는 보통 씨티은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씨티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만들고 갔다가 현지에서 은행계좌를 다시 만들어 현지계좌로 이용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도 씨티은행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엔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계좌의 경우에는 저는 하와이 물가가 너무 비싼데다가 수수료까지 많이 나가서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마음에 현지계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학교에 가시면 새 학기라 동아리며 봉사활동단체며 캠퍼스 내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광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 학생활동에 많은 참여를 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동아리의 경우에는 댄스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토론 동아리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 봉사활동에 가입하시면 최대한 영어에 많이 노출하고 처음에 친구들을 보다 쉽게 많게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공부만으로 너무 벅차서 학교활동을 망설이기도 하지만 우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환학생은 그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보고 배우고자 함을 목적이라 생각하기에 현지 외국학생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으로 가있는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갈 때 오히려 저는 학교 사무실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가서 부담 없이 편하게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들과 얘기하며 농담도 하고 친해지며 speaking연습을 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영어는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는 회화 실력을 늘리고 외국인 울렁증을 없애고자 무작정 시간 나는 대로 매일 사무실에 놀러 가곤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때 학교 직원 분들과 친해져서 제가 나중에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았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교환학생으로 가있는 한 학기는 한국 학교에서 있던 한 학기와 비교도 안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보내어 알찬 한 학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